

# 승점 2점 놓친 광주FC, 제주 잡으러 간다



### 11일 제주 원정...강원전 종료 직전 동점골 내취 전남 드래곤즈, 오늘 충남과 K리그2 20라운드

광주FC가 강원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승리를 위해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22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다.

7일 강원도로 갔던 광주는 이번에는 제주로 건너가 원정 2연전을 갖는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지난 강원 원정이었다.

광주는 0-0으로 맞선 후반 46분 터진 티모의 득점으로 승리를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광주는 경기 종료로 1분도 남겨두지 않고 전경기 강원외의 코너리 상황에서 한국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 무승부에 그쳤다.

승점 2점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광주의 투지가 빛났던 강원 원정이었다.

원정길에 올랐던 광주는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속 유니폼이 찢어질 정도로 강한 파울을 받고 승점을 더했다. 이번에는 승리로 3점을 한번에 얻겠다는 각오다.

시즌이 거듭될 수록 광주의 측면이 탄탄해지고 있다.

앞선 강원전에서 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희균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적극적인 드리블과 키패스로 공세를 펼쳤다. 토마소도 화려한 발차기와 간결한 패스로 공격에 활로가 됐다.

측면 수비수인 두현석과 이민기, 김한길은 적극적인 오프백까지 선보이면서 광주는 강력한 날개를 구축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은 허용했지만 아론과 티모의 안정적인 수비도 눈에 띄고, 골키퍼 이준도 선방을 이어가면서 뒷문을 지키고 있다.

주장 안영규와 이순민, 이진희 등이 짧은 시간 경기를 소화하면서 제주전에 맞춰 체력을 비축하는 등 원정 강행군에 맞춰 체력 배분도 잘 이뤄졌다.

제주와 광주는 나란히 8승 5무 8패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승점 29점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에서 제주가 2점 앞서 한 단계 앞에 자리하고 있지만, 실점은 광주가 24점으로 제주보다 4골을 덜 허용했다.

안현범, 유리 조나탄, 헤이스, 김오규, 김봉수, 이주용 등 출중한 실력을 가진 자원을 보유한 제주는 끈끈한 조직력과 패스 플레이가 강점이다.

현대 전적에서도 제주가 7승 5무 5패로 광주에 앞섰다. 하지만 제주는 2무 4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다. 또 앞선 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44분 실점을 하며 1-2패를 기록,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위기의 제주를 상대로 광주가 적극적인 압박과 측면 공격으로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외국인 공격진을 전면에서 내세워 충남아산 원정에 나선다.

전남은 10일 오후 7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을 상대로 K리그2 2023 20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서울이랜드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10분 터진 김건오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고 최희원의 자책골도 나왔지만 새 외국인 선수 미키지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광주FC의 티모가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46분 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발디비아가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시즌 7호골을 성공했다.

특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은 미키지는 그라운드 투입 2분 만에 골을 기록하면서 순위 싸움에 청신호를 켜다. 전남은 베테랑 수비수

김현훈을 수원FC에서 임대 영입해 수비도 강화했다.

새 전력을 더한 전남이 아산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쟁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퍼펙트큐!

### '당구 여제' 김가영, LPBA 최초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사진)이여자프로당구(LPBA) 최초로 퍼펙트큐를 달성해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김가영은 지난 6일 밤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LPBA 16강 사이아야코(일본·하나카드)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1로 맞선 3세트 첫 이닝에서 9점을 한 번에 쓸어 담았다.

퍼펙트큐는 프로당구 세트제 경기에서 상대 점수와 이닝에 관계 없이 한 큐에 세트 모든 득점(PBA 15점·LPBA 11점, 마지막 세트는 PBA 11점·LPBA 9점)을 내면 주어지는 특별상이다.

기록 달성자에게는 'TS삼푸 퍼펙트큐상'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앞서 남자부 PBA에서는 모두 26차례 퍼펙트큐 달성자가 나왔다.

김가영의 퍼펙트큐는 마지막 3세트에 나왔다. 실공을 얻은 사이아가 2득점으로 물러나자, 김가영은 끝까지 옆돌리기로 퍼펙트큐로 향하는 첫 득점을 냈다.

이어 옆돌리기와 횡단 샷, 뱅크샷 등 고난도 기술로 8점까지 단숨에 도달한 뒤 뒤돌리기로 마지막 9득점을 완성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경기 후 김가영은 "언젠가 나올 기록인데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골프의 홀인원 같은 느낌"이라며 기뻐했다. /연합뉴스



# 우상혁,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우승 조준

### 12일 방콕서 개막...전남 김장우·정일우·박서진도 출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사진)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정상 탈환을 위해 도약한다.

전남 소속 김장우(장흥군청·세단뛰기), 정일우(여주시청·포환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해머던지기) 등 3명이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6시 20분에 시작한다.

이미 우상혁은 방콕에 도착해 많은 관심 속에 훈련 중이다.

'세계적인 점퍼' 우상혁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선수들도 많다.

우상혁은 2017년 인도 부바네스와르 대회에서 2m30을 넘어 우승했다.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던 2019년 카타르 도하 대회에서는 2m19로 공동 7위에 그쳤다. 2021년에

예정됐던 중국 항저우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취소됐다.

우상혁은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노린다.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 공동 7위에 그친 2019년과 현재 우상혁의 입지는 완전히 다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 우상혁은 2021년 상반기 때까지는 '아시아권에서도 입상을 장담할 수 없는 선수'였다.

2021년 8월 1일 도쿄 올림픽에서 2m35를 넘어 4위를 차지한 우상혁은 이후 '세계적인 점퍼'로도 알려졌다.

한국 육상은 우상혁을 포함해 전남 소속 3명 등 21명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교통사고 선수들 쾌유를 빕니다"

### 광주시배드민턴 협회, 후원 성금 시교육청에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교육감실에서 '광주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배드민턴 학생 선수들을 위한 후원 성금 1442만 5700원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배드민턴 협회(회장 홍성길·사진 왼쪽)는 부상 학생들을 위해 후원 릴레이를 펼쳤다. 각 구청 배드민턴협회와 동호인,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했다.

지난 5월 광산구청장기 대회부터 6월 광주광역시장애인여성부대회까지 각 대회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후원 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광주 모 초등학교 배드민턴 학생선수들은 지난 4월 경기 후 숙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개최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에 참가 중이었다.

광주시배드민턴협회 홍성길 회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성금 후원 릴레이를 펼쳤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해당 학생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꿈을 펼칠 나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보충수업을 제공했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에 협조를 구해 훈련 복구를 위한 재활치료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성금 모금을 해주신 홍성길 회장을 비롯한 광주배드민턴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을 학교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 다문화 대상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시행

### 국비 4800여만원 확보...8~12월 축구·배구 등 4종목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체육회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배구·풋살·티볼 4종목에 대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인원은 축구 22명, 배구 15명, 풋살과 티볼은 모두 20명 2팀으로 구성한다.

축구는 교육청 다문화 정책학교인 하남중앙초등학교와 대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구는 수완문화체육센터, 풋살과 티볼은 터프필드 풋살장에서

교차 개최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종목별로 유니폼 등 경기용품들을 지급한다.

시체육회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문화적 갈등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원받은 또바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여정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